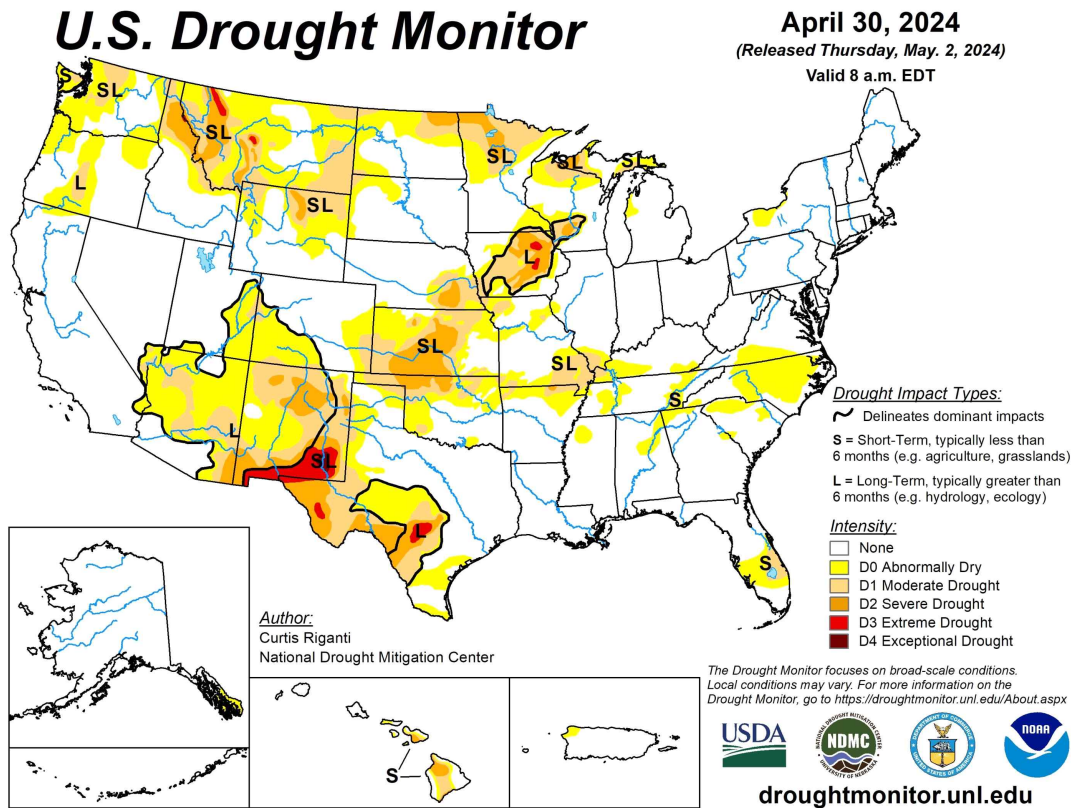




5월 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19)

□ 미국 기후 현황(4/28-5/4)

급격한 기온 경사 때문에 전국 중부 지방에서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4월 30일 캔자스 주 포타와토미 카운티에서는 EF-3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다. 대평원, 중서부 또는 중남부 전역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최소 한 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으며 5월 1, 2, 3일에 더하여 4월 28일과 30일에, 예비 보고에 따르면, 1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목록에 올랐다. 또한 뇌우로 인해 홍수가 생기고, 텍사스 동부 일부에서는 총 10인치 이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평원 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 계곡까지 이르는 더 넓은 지역에 총 2-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오대호 상부 지역과 테네시 계곡까지 이르러 그 정도 규모로 드문드문 비가 내렸다. 대조적으로, 남서부는 물론이고 대서양 연안 주들과 고원 일부 등 많은 지역 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말에는 폭우가 북서부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북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에서는 상당한 강우가 보고되었다. 고원 북부와 북서부 일부 지역을 가로질러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고, 한편 국지적으로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하부 지역에서는 수치가 평년보다 평균 10°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4/29-5/5)

캘리포니아, 중서부 상부, 태평양 북서부 그리고 대평원의 넓은 구역들은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미시시피 계곡, 로키산맥 북부 그리고 남동부 일부도 북동부에 있는 몇몇 곳들과 아울러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텍사스 동부 일부 지역은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키면서 총 10인치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다. 한편 대부분의 동부는 남부 평원 및 남서부와 아울러 해당 주간 동안 평년보다 더 따뜻했다. 오대호, 북동부 및 오하이오 계곡 일부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은 주간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대분지 대부분, 태평양 북서부, 북부 평원 및 로키산맥 북부는 평년보다 선선했다. 아이다호, 오레곤 및 유타 북부의 일부는 몬태나와 노스다코타에 있는 몇 곳들과 아울러 평년보다 8°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4/28-5/4)

■ 유럽:

불리한 습기가 유럽 북서부에 그리고 유익한 소나기가 발칸반도에 나란히 자리 잡았다. 서독과 저지대 국가들과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에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50 mm, 국지적으로 프랑스 남부에 최대 100 mm)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야외 작업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했고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에 있는 겨울 작물들에 대한 품질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비슷한 강우가 내린 이탈리아 북서부에서는 장기 가뭄이 더욱 완화되었고 벼와 옥수수과 같은 여름작물들을 위한 관개수 보유량이 올라갔다. 더 동쪽으로 발칸반도 중부 및 남부에서는 소나기 (5-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수분 결핍을 완화해주었고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 겨울 작물들에 대한 전망을 개선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약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 (2-20 mm, 국지적으로 북서부에는 더 많이 내림)가 겨울밀과 보리에겐 양호하거나 우수한 조건을 유지했다. 독일에서는, 어떤 지역은 40 mm를 넘는가 하면 다른 곳들은 완전히 건조하여, 비가 예측 불허였다. 반면 루마니아 북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날씨가 건조하여 야외 작업과 겨울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서는 지난주의 한파가 훨씬 더 따뜻한 날씨 (평년보다 5-8° C)로 대체되었고 한편 남서부 재배 지역들을 가로질러서는 쌀쌀한 기온 (평년보다 1-4° C 낮음)이 지속되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에서는 만성적인 건조함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주말에 급격히 추워진 날씨가 최근에 오랫동안 이어진 따뜻한 날씨를 대체했다. 주 초부터 중반까지 따뜻했던 날씨 이후로 훨씬 더 추운 날씨가 이어졌으나 서부와 남부 농경지 전역에서는 7일 동안의 기온이 여전히 평년보다 1-5° C 높았다. 그러나 러시아 중서부 전역에서는 극심한 결빙 (-6~-2° C)이 발생했다. 그 한파가, 엽소(잎이 타는 듯한 증상)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외하고, 북쪽에 있는 영양기 겨울 밀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고 출수하고 있는 남부 경작지는 심각한 결빙을 겪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더 선선한 날씨가 단기 건조와 가뭄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뭄이 지속되었던 반면, 러시아 서부에는 동서 방향으로 난 한 쌍으로 난 좁은 강우대가 가뭄을 아주 국지적으로 완화해주었다. 첫 번째 것 (2-25 mm)은 중앙 지방의 남부에서부터 중앙 불가 지방까지 뻗어 있었다. 더 남쪽에서는 훨씬 더 좁지만 더 강하게 내린 혼련성 소나기와 뇌우대(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움직이며 내리는 소나기)가 아주 다양한 강우량을 만들어내었다; 남부 지방의 남서부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보고한 관측소 바로 옆에서 거의 총 60 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그 결과 크라스노다르와 주변에서는 봄 가뭄이 국지적으로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였지만 러시아의 주요 겨울 밀 지역의 대부분은 상황이 악화되었다.

■ 동아시아:

습한 날씨가 남중국 전역에서 계속되었고 남동부에 가장 큰 소나기 (200 mm를 넘어감)가 내려 장강 계곡까지 확장되었다. 일부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영양기 조생벼과 생식 후기 단계에 있는 유채에게 그 수분은 대체로 반가웠다. 남동쪽은 강우량이 감소해갔고 화북평원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식기 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적당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평균 이상의 기온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겨울 작물 지역에는 더 선선한 날씨 (기온이 평균보다 3° C 낮음)가 찾아와 작물의 발달이 느렸으나 식물의 건강에는 더 유익했다. 그밖에 중국 북동부는 조건이 대체로 건조하여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을, 아울러 한반도와 일본 북부에서는 벼 파종을 지원했다. 한편 중국 서부에서는, 신장 남부의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서늘함으로 다소 지연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맑은 하늘 아래에서 면화 파종이 진행되었다.

■ 호주:

유익한 비 (5-25 mm)가 서호주 밀 지대에 퍼져서 최근 몇 주 동안 상대적으로 건조한 토양에 심겨진 밀과 캐놀라를 위해 표토를 적시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비는 겨울 작물의 발아를 도왔고 그로 인해 추가 파종이 촉발되었을 것이다. 더 먼 동쪽에서는 대부분의 호주 남동부에 걸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야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최근에 파종된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을 위한 표토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남동부, 특히 남호주에서는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시키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보면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중부에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서 밀과 최근에 심은 기타 겨울작물들을 위한 표토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했고 한편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보다 건조한 날씨가 여름작물의 수확과 추가적인 겨울작물 파종에 도움이 되었다. 남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2-3° C 낮았고 밀 지대 내 다른 곳에서는 평년에 가까웠으며 (평년 대비 1° C 이내)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초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선선하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앙 아르헨티나를 지배하여 여름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건조와 수확을 지원했다. 산발적으로 내린 몇 차례의 약한 소나기 (5 mm 초과)를 제외하면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코르도바, 산타페 그리고 엔트레리오스 서부를 지나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평년보다 평균 1-2° C 낮은 주간 기온은, 특히 야간 저온이 -2° C까지 떨어진 남부 생산 지역들에서는 건조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국지적인 폭우 (10-50 mm, 국지적으로 100 mm 초과)가 북동부 (코리엔테스와 주변)에서는 면화 수확을 포함한 야외 작업을 방해했다. 북서부에서는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조건이 야외 작업에 유리했는데 이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25 및 34 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15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홍수를 일으킨 강우가 히우그란지두술의 넓은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아직 수확하지 못한 대두의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어떤 큰 부분에 200 mm 이상 내리는 등, 거의 전 주가 총 50-100 mm의 강우로 덮였다. 치명적인 폭우와 그 결과로 초래된 끔찍한 홍수가 농업 인프라는 물론이고 수확되지 못한 대두에 다양한 수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5월 2일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76 및 83 퍼센트 수확되었고 아직까지 작물의 피해는 보이지 않았다. 보통내지 강한 수준의 소나기 (25-50 mm 이상)가 서쪽으로 파라과이까지 확대되었고 북쪽으로 멀리 파라나 남부까지 이르렀으며 이곳에서는 나중에 심은 여름작물들이 추가 수분 덕분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4월 29일 현재 2기작 옥수수의 거의 90 퍼센트가 개화했고 밀은 17 퍼센트 파종되었다. 그밖에, 낮 최고 기온이 종종 섭씨 30도 중반에 도달했던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에 있는 옥수수와 면화의 주요 지역들 (특히 마투그로수, 바히아와 그 주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작물의 빠른 발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북동부 해안을 따라 계절성 소나기들 (10-50 mm)이 계속되어 사탕수수과 기타 지역 재배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올려주었다.

